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부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세계관 운동

손봉호 (대표주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고 있다. 도무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가?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카이퍼(A. Kuyper)나 도여베르트(H. Dooyeweerd)도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순수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다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도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세계관에 어느 정도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며 목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은 주로 우리가 속한 문화와 그것에 감염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발견하고 비판함으로써 조금씩 성경적 세계관에 다가가려 하는 몸부림이다. 일종의 성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비판에는 이제까지 비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한 이원론적 신학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고정 칼럼과 여러 다른 글이나 강연에서 나는 한국의 전형적 세계관이 철두철미 차세중심적(此世中心的)이라고 주장해 왔다. 내세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 보는 세계관이란 것이다.

따라서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이룩해야 하는데 가장 큰 성취가 바로 효경(孝經)이 효도의 극치라고 하는 입신양명(立身揚名), 즉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는 경찰(police within)과 내세의 인과보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에 거부감이 약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며, 외모나 옷 같은 것의 걸치레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문화를 만들었다.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려 하면 1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경쟁심이 가장 강한 사회가 이룩되었다. 그런 경쟁심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가능하게 했으나 1등 콤플렉스와 상대적 박탈감이 불가피하게 동반되어 삶의 만족도가 OECD에서 거의 꼴찌로 떨어지게 되었다.

한 문화의 세계관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 어떤 비판이나 의심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종교를 근본적으로 바꾼 이집트나 그리스를 보면 종교가 세계관에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알 수 있다. 지금의 이집트나 그리스에는 고대 이집트 종교나 고대 그리스 문명의 세계관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다. 과거의 종교가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세계관을 결정한 것은 무속신앙이다. 우리 민족이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종교였다 하는데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아직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무속종교는 아마도 오늘날 살아 있는 원시종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후에 한반도에 들어 온 불교, 유교, 기독교는 그 무속신앙을 근본적으로 대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에 감염되고 말았다. 무속신앙은 절대 신이나 내세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 오직 이 땅에서 운수대통하여 잘 살기만 바란다. 유교도 신이나 내세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무속신앙과 비슷하기 때문에 불교나 기독교보다 한국의 차세중심적 세계관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차세중심적 세계관은 누가 봐도 기독교적 세계관과 다르고 그 자체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불행하게도 한국 기독교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극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당할 정도로 무속화 되고 말았다. 세상과 비슷해졌으므로 한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고 비참할 정도로 부패하고 말았다. 정직하

그리스도인도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세계관에 어느 정도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며 목표다.

지 못해서 사회의 신뢰를 상실하고 교회끼리, 목회자끼리도 경쟁하느라 하나님보다 자기 교회를 우선시하는 ‘우리교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의 원주민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긴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을 모조리 죽이거나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비성경적 세계관에 감염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가를 잘 보여준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주로 지식인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화를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반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할 정도의 지식과 지적능력이 요구된다.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이 ‘학술’ 동역회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 · APRIL · 2014



WORLDVIEW

2014년 04월호 WORLDVIEW 통권 166호



표지인물
로버트 존스톤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06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_로버트 존스톤 Robert Johnston

SPECIAL

16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들과 기독교 세계관 _이승구

20 동양철학(유교)의 세계관 비판 _문석윤

COLUMN

02 대표주관 세계관 운동 _손봉호

26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4 기독교 속에 들어온 이슬람 _유해석

32 일상다반사 기독교세계관과 성경 읽기 _전성민

36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말씀에 비친 현대음악 _윤규일

CULTURE

58 유머 _손봉호

BOOK REVIEW

41 서평 죽음을 배우다 _김민철

46 서평 충돌하는 세계관 _최태영

NEWS

50 소개합니다! 범아시아아프리카대학협의회 PAUA

57 사무국 뉴스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전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관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신효영
편집위원	김지원, 권태경, 박영주,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교정/교열	김선경
인턴기자	김소라
디자인	황정희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로버트 존스톤 Robert Johnston



번역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사진 신호영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기독교와 문화”, 특별히 “신학과 영화”를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존스톤이 내한했다. 지난 3월 3일 IVP 주관 하에 “영화와 영성, 교회는 왜 영화를 환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그를 만났다.

하나님께서서는 영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_로버트 존스톤(Robert Johnston)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그를 만나게 된다, 듣게 된다. _켄 가이어(Ken Gire)
영화가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_가레스 히긴스(Gareth Higgins)
21세기 문화 속에서 신성을 만난다. _크레이그 뎃와일러(Craig Detweiler)

하나님이 영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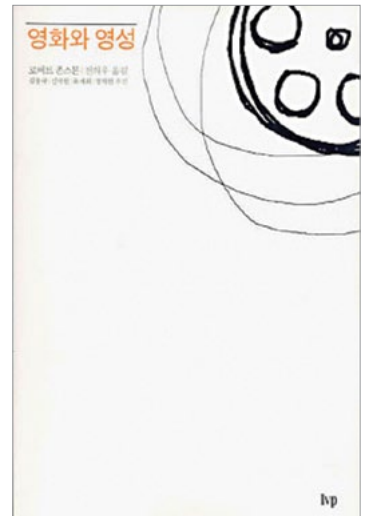
또 영화의 영성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화에 나타나신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신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켄 가이어(Ken Gire)는 “나는 교회보다 극장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다. 영화가 늘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깊은 깨달음이나 영감을 주는 것도 아닌데, 초월을 넘어 하나님을 경험하곤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지 바나(George Barna)라는 사회학자는 현재 성인의 20%가 주로 미디어와 예술, 문화를 통해 영적 체험을 하고 있으며, 2025년경에는 35%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삶의 의미를 반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야기,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영화, 당신의 인생과 무슨 상관 있을까?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가장 감동 받은 영화와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즉 거룩한 분을 만나고 빛을 얻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깊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성령을 체험한 것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진리를 엿볼 수 있는 영화를 본 적은 있다, 즉 일종의 교육적인 경험을 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주제를 가진 영화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할 때 이 세 종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Editor's Comment



영화와 영성

이 책은 신학과 영화, 혹은 기독교와 영화 사이의 서먹한 관계에 난감해하는 이들에게 둘의 화해와 창조적 관계를 이끄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또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신학을 풀어내며, 신학이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종교와 사회, 교회와 영화관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첫 번째,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첫 번째 부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펭귄의 행진>(March of the Penguins)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황제펭귄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남극에서 태어나 물속에서 3,4년 지내다가 다음 세대를 낳기 위해 밖으로 나와 어딘가를 향해 멀리 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설자인 모건 프리먼은, 미국의 각종 미디어에서 종종 하나님 역할을 하는 배우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펭귄도 수컷보다 암컷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암컷들끼리 싸우고, 수컷은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모건 프리먼은 그들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냐 묻습니다. 펭귄 이야기이지만 삶의 신성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March of the Penguins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르칠 때, 어떤 학생 부부와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람 전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의 고민을 듣게 되었는데, 신학교 졸업 직전 이미 두 군데에서 청빙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는 캐나다 북쪽의 작은 동네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직으로, 작은 동네라 간호사인 부인이 직업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아이를 기를 수 있고 집이 제공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밴쿠버의 변화가에 위치한 작은 교회로 불신자들을 전도·개척해야 했고,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아내가 파트타임이라도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영화 본 다음 날 그 학생이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그러더군요. 영화를 보고 집에 가자마자 아내와 얘기했답니다. 저 펭귄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틀림없이 우리도 보살펴 주실 거라고. 그리고는 밴쿠버의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입니다.

두 번째, 영화 속에서 나를 보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감화, 깨달음, 충격 등을 받았다 합니다. 한 학생이 정서적으로 완전 피폐해져서 남과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영화를 본 후,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듣던 한 30대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성탄절 즈음에 그녀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 그녀를 강간하고 때리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끌고 나와 빈터에 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5년 동안 집 안에

틀어박혀 술과 마약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 후 성탄절, TV에서 <It's a Wonderful Life>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1946년 작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TV에서 시도때도없이 계속 돌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It's a Wonderful Life

이 영화는 미국 작은 마을의 은행가인 조지 베일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그는 일을 하느라 대학에도 가지 못했고 여행도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출세를 하거나 마을을 떠나 모험을 하는데, 자신은 고향에 남아 지긋지긋한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문제가 생겨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의 순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을 때 클라란스라는 천사를 만납니다. 그는 조지가 크고 작은 일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말해줍니다. 조지가 없었더라면 친구, 가족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영화를 통해 그녀는 처음으로 삶의 작은 소망을 보았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지만 아직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미한 나의 작은 일이 어느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후 자살 생각이 사라졌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반추해보게 됐다. 주인공 조지가 했던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토록 영향을 미쳤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아주 작은 결정이나 작은 일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었다. 조약돌 하나에 파문 이 일듯, 나쁜 경험은 물론 좋은 일도 사람들에게 물결치며 번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폴리신학교에 와서 지난 2~3년간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었다.”

그녀의 글 중

이것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았다고 말하죠. 이들은 자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영화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의 비유로서의 영화

세 번째 부류는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신앙생활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은 적은 있다고, 그래서 영화는 하나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 더 깊이 다가오고 강권하는 힘으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Life Is Beautiful)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무렵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도시로 간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20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과 마을 광장을 지나다가 제과점에 크게 '개도 안 되고 유대인도 안 된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인 아이는 아버지에게 ‘그래서 유대인이 뭐가 문제제?’ 하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겁먹지 않도록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저기는 스페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가게이고, 저 약국은 중국 사람도, 캥거루도 안 된다고 쓰여 있다고. 그리고는 “우리는 뭐가 안 된다고 할까? 원하지 않는 게 있음 얘기해봐.”라고 묻습니다. 영화 후반에는 주인공이 자신의 상상력과 유머로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에서 아이를 보호합니다. 전반부의 유머러스한 것들이 후반부의 참혹한 현실과 대조되면서 훨씬 더 극악하게 그려집니다. 영화를 본 많은 학생들은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무한한 사랑,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일종의 비유같이, 교육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원생이 된 딸이 잠시 이탈리아에서 지낼 때 함께 여행을 하면서,

영화 속 마을 광장의 그 가게 앞에 섰습니다. 영화 속 아버지와 아들처럼 딸의 손을 꼭 잡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의 힘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에겐 그냥 하나의 비유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화는 “영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영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기독교 진리에 대한 하나의 비유 정도”입니다.

영화가 신학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레미제라블〉. 가족을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간 그는 몇 년을 견디다 탈옥하여 어떤 교회로 들어갑니다. 신부님이 그를 받아줬는데도 그는 그곳에서 은 식기를 훔쳐 달아납니다. 결국엔 체포당하고 훔친 은 식기도 발각되죠. 그러나 신부님은 그가 훔친 게 아니고 자신이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은촛대까지 얹어줍니다.

그의 은총이 장발장을 변화시키죠. 그렇게 그는 아주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수년간 장발장을 쫓아다니던 경찰은 법에 흠뻑 젖어 살구요.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은총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인간적이고 풍성한 사람이, 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점점 협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법에 도취된 경찰은 결국 자살을 하고 말죠.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Yes’는 하나님의 ‘No’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예로 호세아 11장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핵심, 그것은 대속과 은혜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은총과 사랑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화가 일종의 계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인 거죠. 열왕기하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등장하는데, 이 느고가 유다 왕 요시야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

다며 길을 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은 어떤 면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많은 크리스천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고, 분명 속임수라고 말이죠. 결국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화를 마무리하면서,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쳐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Editor's Comment



허무한 아름다움

현대 영화를 통해 전도서를 읽는 동시대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책. 현대 영화의 문제작들과 전도서의 양방향 대화를 방법론으로 삼아, 고대의 지혜자와 오늘날 영상으로 말하는 현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인생의 역설적인 주제들을 탐구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영화와 문화를 보는 방식에 한 차원 더 역동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연구서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도서 메시지를 현대 영화를 통해 역동적으로 풀어내며, 설교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신학적 통찰을 이끌어낸다. 또한 최근 영화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뒷이야기로 재미를 더해준다.

시대를 넘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책을 쓰셨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는 자연 질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입니다. 영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 하비 콕스(Harvey G. Cox)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신조의 시대를 넘어 신비의 시대로 넘어간다.” 여기서 ‘신조의 시대’란 신조, 교리 등이 강조되던 시대를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교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그 사람의 모범적인 삶, 교황으로써 신는 특별한 빨간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나, 밤중에 조용히 빠져나와 무상 급식을



하버드 교수 하비 콕스(Harvey G. Cox)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신앙의 시대를 넘어 정의의 시대로 넘어간다.”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 법보다 은혜를 먼저 앞세우는 모습 등은 감동적입니다. 성추문 때문에 망가지고 교리적인 권위 때문에 딱딱해진 교회가 아닌, 이러한 사람을 통해 사람들은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황이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고 심지어는 록 음악잡지인 <롤링스톤즈>의 표지 인물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진 논리나 교리가 아니고 간증이자 예증입니다. 영화가 그런 경험, 그런 간증의 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신학과 예술, 신학과 영화

‘발견’(Discovery)과 ‘계시’(Revelation)의 어원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Discover means to uncover.”(발견이라는 것은 결국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Reveal means to unveil.”(계시란 베일로 가려져 있던 것을 걷어내는 것을 말한다) 둘 다 뒤쪽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앞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발견했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발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셨다.’,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발견과 계시는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견’이 자연적인 면이 강하다면, ‘계시’는 초자연적인 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둘은 흡사해서 구별이 쉽지 않으며 의미상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 면이 더 강조되는 듯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신학과 예술, 특별히 신학과 영화에 관한 논의에 어떤 열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든 ‘영적일 수 있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보는 눈, 즉 교만의 눈인가 사랑의 눈인가입니다. 영화를 영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를 판단하기에 앞서 영화가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열어 영화를 받아들이고 판단이든 비판이든 하는 것입니다.

※ 본 내용은 IVP와 풀러신학대학원과 협력하여 진행된 세미나의 내용 일부이며 IVP를 협조로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IVP관계자 분들과 통역으로 수고해주신 신국원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로버트 존스톤

스탠포드대학과 풀러신학교, 듀크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93년부터 풀러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시티오브엔젤 영화제의 실행위원이기도 하다. 복음주의, 신학/종교와 예술, 신학과 영화, 교회와 연예 산업, 신학과 현대 소설, 구약 지해문학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저서로 <Grace upon Grace> 등이 있다.

팔들이 어렸을 적, 너무 피곤해서 이야기를 반쯤은 건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하고 있었죠. 제 생각에는 필요한 대답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왜 듣지 않냐고 하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어 제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건성으로 대답할 때와는 정말 다른 답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들으면 달라집니다.

먼저 자신을 열면, 대답하는 태도, 분위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달라집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일종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떨 땐 스토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얘기하려는 걸 못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나와 너>(Ich und Du)에서 ‘나와 너(관계)’, ‘나와 그것(대상)’의 관계를 대조합니다. 영화가 영적이 되려면 내가 우리 딸에게 정신 차리고 듣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고 듣고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화든지 예술 작품이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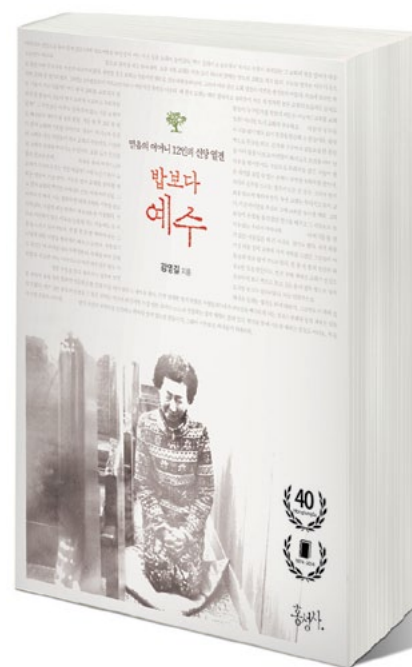
믿음의 어머니 12인의 신앙 열전

밥보다 예수

밥과 예수를 맞바꾼 사람들의 단 한 가지 고백

“예수가 밥 먹여 주더라!”

예수로 심장을 물들인 믿음의 어머니 12인,
열혈 헌신으로 한국 교회의 초석을 세우다!



강영길 지음/A5변형/416면/본문 2색/15,000원

이야기가 있어, 사람이 있어 아름다운 교회길



올레길, 둘레길보다 좋은 순례길

국민일보가 ‘아름다운 교회길’ 스무 곳을 선정했다.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건축 및 교회사적 의미가 있는 교회,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선교 문화를 살찌운 교회, 자연이 아름다운 교회 등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 떠나는 순례길은 자연과 삶은 물론,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는 여정이다. 늘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더해 가는 이들을 찾는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길이 나고 그 길을 따라 이야기가 또 이어진다.

글 전정희/사진 광경근/A5변형/320면 안팎/전면 컬러



한글서체

<http://www.hsboo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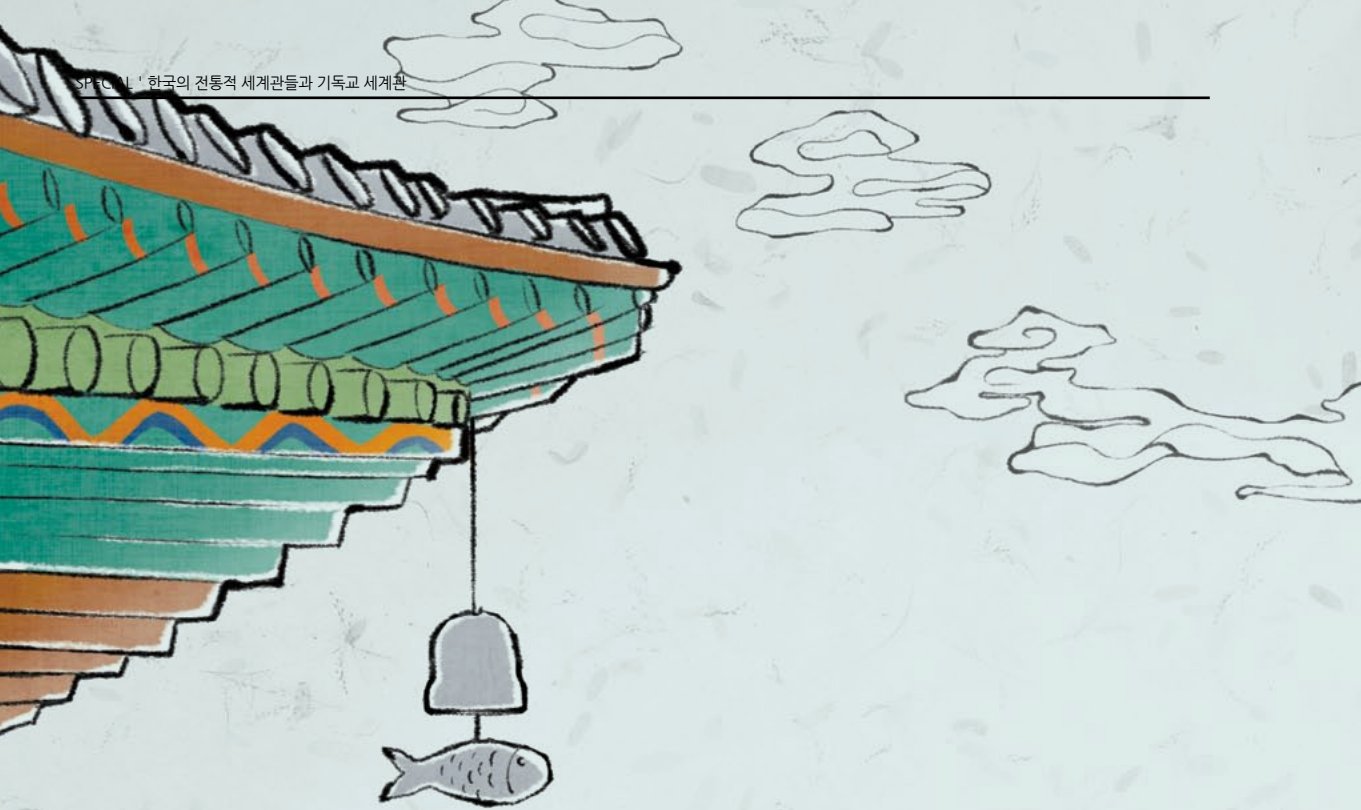
WORLDVIEW SPECIAL



무속에 들썩이는 한국

900만 관객의 흥행을 기록한 한국영화 <관상>,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귀신’, 빠지지 않는 소재인 ‘환생’, ‘주술’ 이제는 ‘외계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예능에서까지 자연스럽게 접한다.

한국의 세계관,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들과 기독교 세계관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들을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더구나 그것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일은 더 어렵다. 그럼에도 이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을 깊이 분석하는 일은 동양 사상, 특히 한국 사상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 짧은 글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전통적 세계관의 영향을 극복함으로써, 온전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드러내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샤머니즘(Shamanism)과 샤머니즘의 영향

가장 긴 시간 동안 깊이 뿌리 내린 전통적 요소는 역시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 조상들이 우랄 산맥을 넘어 오기 전부터 깊이 뿌리 내린 무교(巫敎)는 다른 지역의 샤머니즘과 비슷하다. 무당(shaman)이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써 화(禍)나 액(厄)을 물리치고 복(福)이 오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무교는 본래 현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종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죽은 후의 상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교적 사유 방식에 의하면 종교적 의식은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행해지므로, 매우 조심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의식을 행하는 시간 및 장소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 및 장소를 구별하고, 일상과는 다른 몸과 마음의 자세를 요구한다는 점, 의식을 위해 정성과 상당한 재화를 드려야 소기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는 일종의 형성주의적 사유방식이 무교에 의해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철저히 성경적 개념에 유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불교나 유교와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되기 쉽다. 우리의 기복(祈福)적 정향성은 이미 이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생각을 바꾸고 세계관을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강한 기복종교의 특성을 나타내기 쉽다. 사실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그것을 문제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은가? 심각한 문제이다. 샤머니즘적 기독교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외치는 헌신과 자기 변혁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철저한 자기 변혁이다. 복 받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렇게 온전히 변화하여 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좁은 의미의 예배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더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는 정성을 다하나, 일상생활은 조금 느슨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의 성속(聖俗) 이원론은 샤머니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영육 이원론이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수도원 운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한국의 성속 이원론은 샤머니즘과 그 영향 하에 있는 불교와 유교의 형식주의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다. 일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관없이 목욕재계하고 마음과 몸을 단정히 하여 의식(筵)에 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일상의 삶과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에서의 삶의 태도는 달라야 하고, 다를 수 있다는 의식으로 나타나게 된 듯하다.

그러므로 기복주의적 성향과 성속의 구별은 무교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해야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된다.



2. 불교적 세계관과 그 영향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소위 고등 종교(the Great Religions)는 불교(佛敎)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와 존재 자체의 고난인 소위 본고(本苦)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윤회(輪回)에서 벗어난 존재, 즉 깨달은 자(覺者)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解脫) 또는 열반(涅槃, nirvana)에 이른다고 한다. 불교는 각자가 근본적으로 깨달은 자인 부처(Bud-dha)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불교의 최고 원리인 중도(中道)를 깨달아 모든 존재의 여실한 모습을 보게 되면,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고 번뇌가 곧 깨달음이므로(生死卽涅槃, 煩惱卽菩提) 생사와 열반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일 뿐 근본적인 차별은 없다고 하기도 한다. 즉, 불교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一體唯心造)고 본다. 그런 입장에서 해탈한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극락정토(極樂淨土)가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고, 사실 그것이 실재하는 아닌지를 따지는 것조차도 초극(超克)한 상태가 열반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현실에서 시작하여 고난으로 가득찬 현실을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종교이다. 기독교인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1) 이 세상의 삶은 적극적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죽은 뒤의 세계만이 바른 세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2)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덕을 쌓아야 죽은 후에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불교를 비롯한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주장으로 기독교인들도 동화되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3) 불교, 특히 선불교(禪佛敎)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으며, 서구에도 유사한 경향이 있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상 기도가 제시하는 관상 방법과 선(禪)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

라. (4) 의식을 행하며 정성껏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결국 무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불교적 기복주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5) 전생(全生)과 후생(後生)을 말하는 불교적 윤회관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언어생활에도 침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기독교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3. 유교와 그 영향력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학(儒學)은 다양한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유학이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마음(심령)과 몸(사공)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도리에 일치하여 조화 있게 활동되는 것”이다(田愚, 『유학(儒學)』, 1912). 즉, 유학은 만물의 질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참 사람됨을 실현하는 것으로, 노력하면 이런 것을 잘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가장 고상한 형태의 유학은 만물의 이치에 대한 파악과 참된 인간됨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형태의 유학도 인간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過信)하는 것이 된다.

그런가 하면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잘못된 형태의 유학”은 (1)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허례허식(虛禮虛飾)에 치우치고, (2) 조상 제사에 무교적 개념을 접목하여 조상신의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본래 유교적 제사의 정신에서 벗어나며, (3) 극단적인 경우에는 반상(班常, 양반과 상민)의 구별, 좀 나은 경우에는 군자(君子)와 군자가 아닌 범용(凡庸)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쉽다. 아들·딸의 지나친 구별이나 근자에는 나이에 따른 구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도 보인다.



기독교인들도 오랫동안 이러한 세계관 안에 있었으므로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젖어들기 쉽다. 그리하여 (1) 우리의 삶이나 교회 행사에서도 허례허식이 나타날 수 있다. 헌금에 이런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유교적 축복의 기독교적 변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이든 사람은 성경의 원리도 무시해드 되는 듯한 사고방식은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이다. 이외에도 주변에는 여러 사상의 혼합된 형태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세상의 방식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성경은 항상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세계관들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애써야 한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세계관 비판” 동양철학(유교)의 세계관 비판

문석윤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아시아, 적어도 중국과 한국의 사상 문화 전통에서 유교(儒敎)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전통 시대 동아시아인들이 옳다고 생각한 관념들 중 대부분이 유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인격 수양 곧 수신(修身)을 인간다움의 근본이자 지도층의 조건으로 강조한다거나(『대학(大學)』),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도리로서 부모에 대한 효(孝)를 중시하되 그것이 살아계실 때 잘 봉양(奉養)하는 것뿐 아니라 사후(死後)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를 통해 외적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논어(論語)』, 『맹자(孟子)』)고 생각하는 등은 전통 시대의 상식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는 그러하다. 유교는 전통시대 동아시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방향지운 결정적 관념체계를 제공하였다.

유교 혹은 유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은 세계와 인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지식, 또는 이 세계를 넘어서 있는 어떤 절대적 세계에로의 초월 혹은 구원에 있지 않았고,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선(善)의 실천에 있었다. 물론 선의 실천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반성적 질문을 빠뜨릴 수 없었으며, 그런 점에서 세계와 인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적 해명 또한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른바 그들이 지향한, 성인(聖人)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완성자의 경지는 종교적인 구원의 성취에 비견할 만한 점들이 있었다.

유교는 윤리적 실천을 지향한 세속적 이념체계였지만, 분명 천(天)과 조상신(祖上神)을 숭배하는 종교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었다. 천(天)은 고대 동아시아의 정치적 통합을 지지하고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를 통괄적으로 주재하는 어떤 인격적 신성(神性)으로 여겨졌다. 그것의 보편적

이고 유사-인격적 특성은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1610)를 중심으로 한 예수회 선교사들로 하여금 한때 그것을 기독교의 신성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에 대한 번역어로 ‘천주(天主)’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천은 창조주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대상은 아니었다. 천에 대한 제사인 교제(郊祭)는 천자(天子)에 의해서 독점되었으며, 그것은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질서를 제의(祭儀)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고 정당화한다고 하는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조상에 대한 제사가 가족 내의 가부장(家父長)에 의해 집행되고, 그것이 그에 참여하는 가족 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확인하고 결속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따라서 천과 조상신을 모시는 종교로서의 유교는 기존의 정치사회적 질서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는 공동체 종교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개인적 구원을 추구하는 구원 종교는 아니었다.

유교에서 개인적 자아는 오직 공동체적 자아의 일부로서, 공동체를 통해서만 온전히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추구는 이기적인 것이라 비난되었으며, 공동체도 또한 그러한 개인적 안녕과 완성을 지원하는 데 그 본질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유학자들은 인간은 본성 상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지향한다(性善)고 생각했으며, 국가는 확대된 가족이고, 군주는 백성의 아버지로서 하늘로부터 복지와 교육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성인(聖人)은 또한 이상적 군주로서, 그러한 공동체성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실현하는 자이다. 『맹자』 결국 유학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이요, 그와 지극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윤리적 실천의 중심은 자기 극복과 순응(順應)이었다.

조화(調和)는 인간적 삶의 이상인 동시에 자연의 본질로 이해되었다. 자연 혹은 우주는 지극한 조화를 구현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우주는 무한한 시간 속에 펼쳐져 있으면서, 대립하는 두 가지 힘—하늘과 땅, 혹은 음(陰)과 양(陽)—의 조화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生成)과 소멸을 반복한다(『주역(周易)』). 즉, 우주는 어떠한 외재적 원리나 창조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스스로 조화하면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자족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인간은 자연을 변혁하고 이용하지만, 또한 그의 일부로서 자연 세계내의 조화를 실현하고 확장한다. 그것은 곧 만물일체(萬物一體)의 실현으로서, 우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우주 공동체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유교에서 인간은 육체와 혼백(魂魄)의 결합으로 이해되었다. 죽음은 혼백이 육체를 떠난 것, 혹은 혼과 백이 분리되는 것으로서, 혼(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魄)은 땅에 머물거나 지하로 내려간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자연세계의 운행 중에 여러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일어난다. 그것을 명(命) 곧 운명이라고 한다. 그들은 운명론을 어느 정도 허용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이의 혼과 백은 백을 상징하는 신주(神主)에 혼이 내려와 일시적으로 결합한다고 여겨졌지만 그의 개체성은 그리 확고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혼과 백은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관념 또한 확고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유교의 인간 이해에서 더욱 중요한 개념은 심(心) 곧 마음이다. 본래 심장을 형상한 글자인 심은 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외부세계를 인지하여 수용하고 판단하며 사유하는 지각(知覺)적이며 정신(精神)적인 활동 일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체, 곧 자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마음은 한편으로 신체의 일부로서 자신이 소속된 개체적 신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이 부여한 성(性)으로 말미암아(『중용(中

庸)』) 개체성을 넘어 전체 혹은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 하면서 그의 보존을 지향하는 실천을 한다. 전자를 인심(人心)이라고 하고 후자를 도심(道心)이라고 한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희미하다.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며, 진실하게 그 바름[中]을 잡아야 한다.’(『서경(書經)』)라고 하는 것은 마음 수양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계속 음미되어져 왔다. 마음은 신체를 지배하고 인심을 도심으로 돌이키는 자기 주재적(主宰的) 활동을 하지만 또한 결국 신체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서, 신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된다. 마음은 결코 영혼과 같은 어떤 독립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영혼의 기능 혹은 영혼에 소속된 어떤 것도 아니었다.



죽음과 함께 개인적인 모든 것이 소멸되지만 유학자들은 죽음을 결코 심각한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나름대로 죽음을 극복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 신체는 소멸하지만 공동체는 남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후손들이 남아 있다. 자신의 생물학적 후손들을 통해 이어지는 그러한 생물학적 연속과 제사 행위를 통한 그에 대한 기억의 지속을 통해 우리는 일종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즉, 핏줄이 이어지는 한, 그리고 제사 행위가 이어지는 한, 죽은 자는 현실세계 속에서 영속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손에 의해 봉행되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곧 그러한 생물학적 연속의 확인이며, 또한 죽은 자가 여전히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 있음을 보증하는 의식이다. 그를 통해 개인이 영속적 삶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 또한 강화된다. 그런 점에서 유교에서는 가족 공동체가 교회이며, 효(孝)와 제(悌)와 자(慈), 곧 공손과 가족애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격률들이 교리이고, 조상에 대한 제사가 핵심적인 의례가 된다.

유교에는 삶에 대한 궁극적 부정의 관념이 없으며, 이 삶의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세계도 상정하지 않았다. 사후 세계는 현실의 삶의 세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도 없다. 유학자들에게는 삶의 세계가 유일한 세계이며 모든 선한 것들은 이 삶의 세계에 속해 있으며 이 삶의 세계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현실세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삶의 장인(匠人, 기술자 혹은 예술가)이었다. ‘성(誠)’은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삶의 모토이다. 유학자들은 그것을 봄·여름·가을·겨울로 이어지는 자연 질서의 진실함과 통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성(誠)을 추구하는 삶을 그러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여겼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우주적 질서에 대한 경외의 태도, 곧 경(敬)과 통하는

것이였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서, 개인적 자아는 자신의 윤리적 실천을 통해 우주적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유교의 또 하나의 종교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가 중요시한 가치들은 근대 시기에 들어서 일반적 이성의 관점에서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또한 많은 비판과 도전을 받았다. 인권 관념의 미성숙, 권위주의, 혈연과 지연 학연 중심의 연고주의와 패거리 문화, 가족이기주의, 노동과 기술 및 개인적 창의성의 가치에 대한 경시 등은 그 본래적 의도와 관계없이 유교적 가치에 뿌리를 둔 악으로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힘을 어느 정도 발휘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적 실천에 대한 강조, 그와 관련하여 공동체의 역할과 조화를 중시하며, 삶에 집중하는 것 등은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모든 윤리적 가치와 공동체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자 그 모두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와의 관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즉시 사악한 자기 집중이며 지극한 악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점이 그들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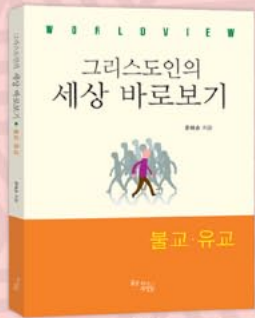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유교가 중시한 가치들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기독교인은 그들 이상으로 삶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시각에서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조화롭고 더욱 개혁적인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장인(匠人)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창조주이며 기초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 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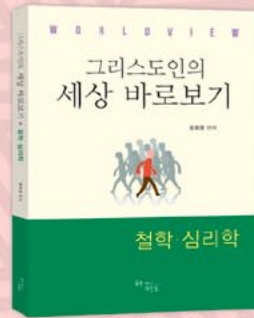
문석운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朝鮮 後期 湖洛論辨의 成立史 研究』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지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 『유교와 기독교』(『신앙과 학문』3권3호, 1998), 『중국 사상의 생명관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21세기 생명문화와 기독교』, 2000, 쿤란출판사) 등이 있다.

학문의 기초, 기독교 세계관으로 풀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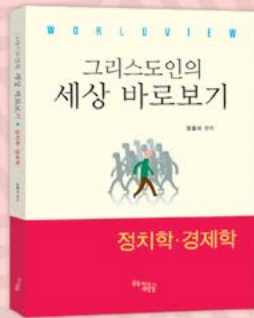
체계적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위한 **교사와 학생들의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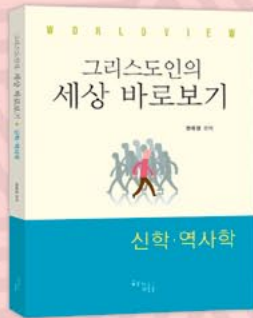
불교·유교
문태순 지음 | 정가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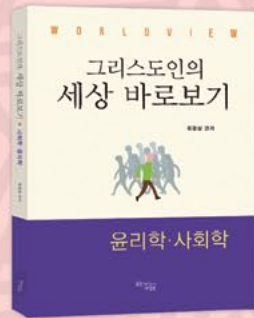
철학·심리학
정희영 편저 | 정가 11,000원



정치학·경제학
강효식 편저 | 정가 11,000원



신학·역사학
권태경 편저 | 정가 11,000원



윤리학·사회학
유경상 편저 | 정가 11,000원

세계관은 문화를 낳는다. 더 나아가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문화의 열매는 달라진다.

《기독교인의 세상 바로보기》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세계관들을 기독교, 이슬람교,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모던주의로 나누었다. 그리고 학문의 각 영역에서 위의 세계관들이 각각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와 세계관에 따라 열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이 책에서는 유교, 불교의 세계관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천 수백 년 동안 민족의 전통사상이자 삶의 방식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해 온 불교와 유교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사의 이해와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을 위해 꼭 해야 할 작업이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04
기독교 속에 들어온 이슬람

일상다반사
성경 읽기와 인간의 타락

나의 믿음, 나의 작품
말씀에 비친 현대음악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04

기독교 속에 들어온 이슬람

유해석 (FIM국제선교회 대표)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01. 한국의 이슬람
02.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03. 이슬람의 믿음
04. 기독교에 들어온 이슬람

※ 이슈칼럼은 하나의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4개월간 연재됩니다.



지난 2월 16일 이집트 시내반도의 성 캐트린 수도원(Saint Catherine's Monastery)을 방문하고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 국경인 타바에서 비자 수속을 밟으며 대기하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Ansar Bayt al-Maqdis) 대원의 자폭테러로 5명이 죽임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필자와도 친분이 있는 현지여행사 사장 제진수 씨도 있어 마음이 많이 아팠다. 전 세계 테러의 80%는 무슬림들이 일으킨다. 지난 9.11 사태 때, 가족을 잃은 한 여인이 들고 있던 피켓이 생각한다.

“Not all Muslims are terrorists, but all terrorists are Muslims.”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무슬림이다.)

그렇다면 왜 무슬림들이 이처럼 테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일까?

바로 이슬람의 세계관 때문이다. 이슬람은 세상을 전쟁의 집(Dar al Harb)과 평화의 집(Dar al Islam)으로 나눈다.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곳은 평화로운 곳이 되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은 전쟁의 대상이기에 전쟁의 집이 된다. 예를 들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이슬람을 창시(A.D. 610년) 하자 그가 속했던 쿠라이쉬 부족의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이 곳을 전쟁의 집으로 묘사한다. A.D. 622년 메디나로 이주한 후부터 무함마드는 칼을 들어 72번의 전쟁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중 27번은 직접 지휘하였다. 드디어 메디나가 이슬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자, 평화의 집이라 부른다. 또,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 지역은 평화의 집이 되고, 이슬람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은 지역은 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쟁의 집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이슬람이 전쟁의 집을 평화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치루는 전쟁을 지하드라고 한다. '지하드'(jihad)는 '자아 드'(jaahad 스스로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동사의 동명사로, 뜻은 '애씀, 노력, 또는 불만, 불찬성 및 비난의 대상에 대하여 투쟁하는데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슬람 연합에는 지하드를 "싸우다"의 뜻으로 정의한다.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한다면, 이슬람은 '행동'(즉, 알라의 뜻을 따르고자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에 더 가깝다.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행동하고, 싸우며(jihad, 성전),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이슬람 종교를 수호하며,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지하드는 오늘날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테러"의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이슬람의 지하드 즉, 무슬림에 의한 테러는 이슬람의 구원관과 관계가 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숙명론에 근거한 알라의 일방적인 선택(꾸란 9:51)이고, 다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꾸란 23:102-103). 셋째,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의 카바 신전으로 성지 순례하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꾸란 3:97).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경우 죽어서 알라 앞의 심판대에 서봐야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불확실한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꾸란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로 하여금 알라의 길에서 성전케 하여 내세를 위해서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알라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꾸란 4:74)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의 곁에 살아있노라.” (꾸란 3:169)



꾸란은 무함마드가 AD 610년부터 23년 동안 받은 계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재의 꾸란은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3대 후계자인 우스만(Uthman)이 653년에 편찬한 것이다.

꾸란에 나타난 지하드 관련 구절은 모두 109절이다. 꾸란에 따르면 순교하는 것은 알라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 순교를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리온'(marturion)이 증인을 뜻하는 '마르투스'(martus)에서 발전된 것처럼, 이슬람의 순교란 말도 무슬림의 믿음의 고백(shahada, 샤하다)에서 나왔다. 그 고백은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라는 것이다.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확장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지하드를 사용하는 주된 동기는 지하드에서 죽은 사람, 즉 '샤히드'(shahid 증인)라 불리는 사람은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지하드 중 죽은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죽는 사람들과 다른 장례절차를 적용한다. 일반적인 경우 시신을 씻기고 모스크에 가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힌다. 그러나 지하드 중 죽었을 때에는 시신을 씻기거나 옷을 입히지 않고, 죽은 상태 그대로 관에 넣는다. 몸에 묻은 피는 알라 앞에 증거이자 명예로운 상징이 되어 천사들이 알라 앞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무함마드가 사망한 632년 이후부터, 포교활동과 무역, 지하드가 결합된 신흥종교인 이슬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동에 본거지를 둔 여러 이슬람 제국들이 북아프리카와 이란, 인도, 동남아 대륙, 이베리아 반도 및 발칸 반도를 장악하자, 무슬림들은 지하드에 굴복한 이교도에 비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확신했다. 이처럼 이슬람 제국은 지하드를 통해 7~17세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

비잔틴 기독교제국이 무너지다

오늘날의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는 무슬림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원래 이 지역은 무함마드가 역사에 등장하기 전까지 약 4세기 동안 기독교제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시대부터 지중해 세계에 기독교가 확장되어 A.D. 500년 이전까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5교구, 즉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지금의 이스탄불), 로마 등이 자리 잡았다. 북부 아프리카 교회들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3명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을 배출했다. 2세기의 뛰어난 변증가인 터툴리안(Tertullian), 3세기의 열정적인 교회 설립자인 키프리안(Cyprianus), 바울 이래 최고의 신학자인 4세기의 어거스틴(Augustine) 등 위대한 지적, 영적 거장들의 지도하에 발전한 북부 아프리카 교회는 약 500교구, 당시 기독교 전체교구의 4분의 1에 해당했다.

그러나 지하드를 통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이슬람 군대는 그 광대했던 비잔틴 기독교제국을 공격목표로 삼았다. 636년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638년에 예루살렘이, 640년에 이집트가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가더니, 692년 압둘 말릭(Abdul Malik)에 의해 북부 아프리카는 완전히 정복되었다.

그렇다면, 무함마드 사후 불과 60년 만에, 찬란했던 비잔틴 기독교제국이 무기력하게 이슬람에게 정복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비잔틴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과의 오랜 영토전쟁으로 지쳐 있었다.

둘째,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현지어인 콥트어나 베르베르어 등으로 보급되지 못해 토착지방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수적으로는 강했으나 영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는 라틴문화와 교회권력과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셋째, 이러한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복음적인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렸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열정으로 전파된 복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제의 지배권과 더불어 성장한 성례전의 반전 하에 질식되어 갔다. 그들은 첫사랑을 잃은 지 오래였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되어 버렸다. 넷째, 신학적인 논쟁은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했다. 이단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내적으로 비잔틴 기독교제국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슬람이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자, 이슬람을 해방군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집트도 단성론으로 인해 이단으로 간주되었고, 이슬람 군대가 들어올 때 콥트교 사제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유럽은 유라비아가 될 것이다

비잔틴 기독교제국이 이슬람에 정복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은 기독교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점점 이슬람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 1970년에 720만 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5,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영국에만 28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으며(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550만 명으로 추정된다), 1,800개의 모스크와 3,000~5,000개의 꾸란 학교가 있다. 독일의 경우 430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으며, 2,600~3,000개의 모스크가 있다. 프랑스가 가장 심각한데 600만 명의 무슬림과 1,300개의 모스크가 있다. 서유럽 3개국에만 약 6,000개의 모스크가 있는 것이다. 히브리대학의 이스마엘 라파엘 교수는 유럽은 유라비아(유럽+사우디아라비아의 합성어)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프린스턴대학의 이슬람 학자 버나드 루이스는 "유럽은 금세기 안에 이슬람화 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있는 모스크, 사막에 모스크를 건립한 것은 이 곳에 알라의 땅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_PHOTO BY 유해석

그렇다면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 가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아랍 및 이슬람 국가로부터의 이민이다. 2차 세계대전 후 경제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프랑스 역시 식민지였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서, 독일은 동맹국이었던 터키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왔다. 유럽 각 나라들은 약속된 노동계약이 끝나면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그러나 자국에는 일자리가 없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에 그대로 정착하길 원했다.

이민 초기에는 사회 최하위층 근로자들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이슬람 국가 이민자들이 유럽 사회에 적응하게 되면서 이들의 문화와 종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 유럽 이슬람의 역사와 성장은 이처럼 이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무슬림의 다산이다. 유럽연합 평균 출산율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5명이다. 한 문명이 25년 이상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정 당 2.11명이 되어야 한다. 출산율이 2명 이하인 문명은 퇴보하게 된다. 1.9명 이하인 문명은 회복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1.3이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문명도 쇠퇴한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황금돔 사원, 아랍어로 베이트 알마크디스(Bayt al-Maqdis)라고 부른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폭탄테러를 한 단체는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Ansar Bayt al-Maqdis) 원래 유대인으로부터 이 사원을 지키기 위하여 설립된 원리주의단체이다. _PHOTO BY 유해석

그런데 유럽의 이슬람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 때문이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평균 1.8명이다. 그런데 20세 이하의 30%는 무슬림이다. 2027년까지 무슬림은 전체인구의 45%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무슬림은 30년 사이에 82,000에서 280만 명으로 증가했다. 영국의 무슬림 여성은 평균 6~7명을 출산한다. 다산에 의해 이슬람 인구가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결혼이다.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야 하지만(꾸란 2:221), 무슬림 남성은 유대인 · 기독교인 · 무슬림 여성과 결혼이 가능하다(꾸란 5:5). 또, 무슬림 남성이 유럽의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는 이슬람법에 따라 이슬람 종교를 갖게 된다. 꾸란은 무슬림 여성에게 독신을 허용하지 않는다(꾸란 24:32). 이슬람은 꾸란에 근거하여 독신주의를 배격한다. 또한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도는 유럽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영국에서는 일부다처로 인한 부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슬람은 이처럼 결혼을 통해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넷째, 유럽인들의 탈교회화와 새로운 신앙의 추구이다. 독일의 경우, '종교세'가 있어 기독교인들은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현재 유럽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교회의 53%에 주일학교가, 86%에는 중 · 고등부가 없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폐쇄된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미 700곳 이상의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었다.

나가는 글

한국에서도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다. 유럽과 같은 이유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인구가 줄어 들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인의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구의 14%(643만 명)를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35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슬람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57만 명의 외국인 가운데, 138,000명(법무부 통계)이 무슬림이다. 또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한국인(71,000명, 2011년 기준)도 늘고 있다. 2013년 6월 법무부 통계를 근거로 보면, 한국인과 결혼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국제결혼 비자 체류자는 148,746명이다. 이중 주요 이슬람 12국 출신은 모두 4,9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서 자라는 무슬림 자녀들 또한 늘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 인구는 약 23만 명에 이른다.

필자는 10년 전에 쓴 책 〈이슬람이 다가오고 있다〉(쿠팰출판사)의 서문에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주변 이웃들이 이슬람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슬람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한국은 10년 안에 무슬림 인구 2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했다. 결국 그 서문은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슬람 인구 100만 명 시대에 이를 것이다.

※ 지금까지 이슈칼럼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FIM선교회 유해석 선교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해석 총신대학교를 졸업, 영국 웨일즈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 선교사, OM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990년부터 이집트 빈민가에서 사역하였으며 지금은 영국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FIM국제선교회 대표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였으며, 한국선교협의회(KWMA) 실행위원과 유럽 코스타 강사 및 선교분과장, CTS 기독교 TV 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토마스 목사전, '만화 이슬람' 등이 있다.



비옥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지금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PHOTO BY 유해석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알아야 한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꾸란의 약 60%는 구약성경에 대한 내용이고 약 6~7%는 신약성경에 관한 내용이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J. Calvin)은 1550년에 집필한 데살로니가후서 주석에서 “무함마드는 배교자요 이슬람은 이단이다.”라고 밝혔다. 둘째,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한때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Back Sliding Christian)이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것인가? 엄밀히 말해서 복음은 망하지 않는다. 전 세계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이슬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슬람권 안에서 도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교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슬람에 대해 선교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슬림들 대부분이 성경적 복음을 듣지 못했다. 20만 명이 넘는 무슬림 공동체가 한국 안에서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으로 소리 없이 성장하고 있다. 누군가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제 조국교회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무슬림에 대해, 적절하고 분명한 선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기독교세계관과 성경 읽기

성경 읽기와 인간의 타락

전성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교수)



※ 본 칼럼은 격월로 연재 됩니다.

‘창조-타락-구속’이라는 틀로 이해하는 기독교세계관에서 타락의 특징은 그 영향이 창조된 모든 것에 미친다는 것이다. 월터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한다. “창조된 사물 그 어느 것도 원칙상 타락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나 가족과 같은 사회 제도든, 예술이나 공학과 같은 문화적 추구든, 성이나 식욕과 같은 육체의 기능이든, 창조 세계의 넓은 영역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수공품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란의 영역으로 끌려들어 갔음을 발견한다”(『창조 타락 구속』, 94쪽). 성경 읽기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란의 영역”에 끌려들어가진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타락이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행위도 타락의 영향을 받는다. 신앙적인 일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심지어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예. 이사야 1:11-13). 성경 읽기도 예외가 아니다. 과연 타락은 우리의 성경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성경 읽기와 인간의 타락

타락의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관계의 파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세계와의 관계가 타락으로 인해 손상되었다. 존 스토틀는 죄의 특성을 “자기중심성”(self-centeredness)이라고 설명한다. 타락으로 인해 손상된 관계들에 죄의 특성인 “자기중심성”이 결합할 때 우리의 성경 읽기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즉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물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 이것은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자).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읽는 것이다. 자주 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어

도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수천년 전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된 성경의 원래 의미와 의도를 잘 이해하며 읽기 위해서는 더더욱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러한 노력을 귀찮아하며 자기 편한대로 성경을 읽어버릴 때 성경 읽기는 위험해진다.

손상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는 한 가지 유형은 성경을 “자기 확신 강화제”로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그 성품과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되기는 커녕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각을 신앙의 이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 생각에 불만을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신약학자 권연경 교수는 “해석학적 우상숭배”라고까지 표현한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참칭하는 것 역시 우상숭배와 다를 없다. 성경 읽기가 우상 숭배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진단은 매우 무섭다. 그러나 사실이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노예 제도, 인종 차별과 성차별을 성경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것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사용한 것도 성경 말씀이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했던 말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마 4:6)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이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무조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읽고 사용하는지 깊게 성찰하지 않을 때, 사탄처럼 성경을 이용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며 던진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마 4:7). 이 대답을 예수님은 끝까지

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삶으로 확증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 “말씀을 믿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롬 1:4). 성경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 읽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읽기는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타락은 이 사실을 잊게 하고 잊고 싶게 만든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둘째, 타락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켰다. 손상된 이웃과의 관계와 자기중심성이 만날 때, 우리는 이웃과 공동체를 잊은 채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주의적으로 읽는다. 다 음은 매우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한 단어를 빼고 적은 것이다. “하나님이 []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원래 이 빈 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빈 칸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고 싶어한다. 자기중심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사실상 “나”라고 생각한다. 빈 칸에 우리 이름을 넣을 때에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그리고 온 세상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잊은 채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는 아브라함의 소명을 읽을 때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마음에 심기지 않고 그저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에 우리의 생각이 멈춘다. “나, 나, 나”만을 되뇌이는 성경 읽기는 타락한 성경 읽기다.

또한 “교통 정리식 성경 읽기”도 있다. 성경을 읽으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 “오늘 이 큐티를 아무개가 꼭 해야 할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디 모데후서 3장 15-17절은 성경의 목적과 유익을 잘 말해준다.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이며, 영감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말이 없었다. 물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예. 시편 119:50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위로를 성경의 유익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 힘들다. 그래서 피한다. 그리고 남에게 미룬다. 이것은 자신을 포함시키는 공동체적 적용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교통 정리” 해주는 것, 성경 읽기의 타락한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타락은 인간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손상시켰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는 환경과 생태를 무시하는 인간중심적 성경 읽기가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만물이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에 사람뿐 아니라 “소, 나귀, 모든 가축”들도 쉬라고 명하셨다(신 5:14). 새의 보금자리에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았을 때 그 둘 모두를 취하지는 말라고 하셨다(신 22:6). 전쟁이라는 긴급 상황에서도 찍어버릴 수 있는 나무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나무를 구별해야 했다. 들에 있는 나무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신 20:19-20, 새번역 참고).

그런데 자신을 온 세상의 중심에 놓은 인간은 온 피조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느끼지 못한다. 잠언을 읽을 때면 “여호와와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 10:22) 같은 말씀에는 밑줄을 그으면서도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와 같은 잠언 (잠 12:10)은 누가 알려줘야만 그제서야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안다. 인간중심적 성경 읽기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는 명령을 창조세계를 돌보고 섬기는 왕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게 한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특별한 지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소명임을 보여준다. 이 사실이 어색하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인간중심적으로만 읽어온 것이다.



전성민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B.Sc.), 캐나다 리젠티칼리지에서 성경언어와 구약학을 (M.C.S., Th.M.),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구약학(D.Phil.)에서 전공했다. 최근 역서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가 있으며 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연구서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를 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 시리즈로 출판되었다.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섬기며 기독교세계관과 성경 주해를 접목한 강의를 하고 있다.

나가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토대인 성경읽기에도 타락은 영향을 미친다. 타락의 영향을 받은 성경 읽기는 자기중심적 성경읽기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는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개인적인 관심을 벗어나지 못하며 인간의 범위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공유하는 다른 생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읽지 못한다. 내 이익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마음을 가리는 불완전한 성경읽기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달연 삼키고 쓰면 뱉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우상숭배적 성경읽기를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잘못된, 타락한 성경 읽기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성경을 내 입장이 아니라 성경 저자의 세계관 속에서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나의 성경 읽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필요보다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공유하는 참된 은혜가 있는 성경 읽기가 될 것이다.

말씀에 비친 현대음악

윤규일



이제 어느덧 40대중반을 갓 넘어선 나에게 '음악'이란 '호흡'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요즘 내 삶의 대부분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작곡자)으로, 연주하는 사람(지휘자)으로 또한 가르치는 사람(교육자)으로 살아간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기만 할 따름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은혜롭게 드리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다. 나는 그 받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나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

세상속에서 '윤규일'은 현대음악작곡가로 자리매김하고 살아간다. 현대음악이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와와는 다른 음악으로써 다장조나 바장조같은 조성의 체계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존의 음악적 구조나 형태를 벗어난 음악으로 볼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장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음악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현대음악작품들은 일반적으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음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그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 본다면 또 다른 세계의 음악과 생각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현대음악은 '살아있는' 작곡자들의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은 이미 '지나간' 유물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음악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자면 -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음악이 아직도 크게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현대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적잖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차이를 갖게 된 이유에는 창의적 수업이나 음악적 훈련, 사회적 인식등의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상 속에서 현

대음악을 작곡하는 크리스천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찬송가나 CCM같은 것으로는 할 수 없는 또 다른 언어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음악작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구조와 매체들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작곡자의 의도만 충분하다면 교회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속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이것을 세상의 언어로 음악을 만들어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여기서 나는 현대음악 크리스천작곡가로서 작곡했던 두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바이올린 독주와 앙상블을 위한 '숨'(Breath for Solo Violin and Ensemble)이라는 작품으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인 곡이다.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뼈를 보고 그 뼈들이 다시 맞추어져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는 내용이다.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절정인 부분은 호흡으로 나타나는 '생기(Breath)'일 것이다. 엄청나게 거친 소리를 내며 뼈들이 만나 골격을 이루고, 살이 붙는 기막힌 광경을 지나가지만, 정작 거기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것은 생명력을 지닌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인간의 형태는 있지만 정작 이를 살아 숨 쉬게 할 수 있는 생기(호흡)이 없다는 것, 즉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전체 이야기의 절정임과 동시에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이다. 그래서 '생기야, 불어 넣어져라'라고 외치는 순간,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하나의 인형과도 불과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극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섭리는 바이올린 독주로 표현되고 있으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피아노는 이야기의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때로는 깊은 계곡에 있는 마른뼈로, 때로는 뼈들의 거친 움직임으로, 때로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의 모습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메조소프라노는 여러 곡 부분에서 내용 전달을 감당하고 있으며, 마지막 가사의 '생기야(Oh, Breath)'는 다시 한 번 '생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곡을 마치게 된다.

이 곡을 처음 계획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잘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숨쉬지 않고 있는 듯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우울증환자나 노숙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은 바로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런 답답한 터널의 숨막힘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건 '생기'를 불러 넣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작곡된 이 작품을 통해 혹시라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기'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이 작곡되어졌다.

다음 작품은 2012년 4월에 있었던 두 번째 개인작곡발표회에 올렸던 작품으로 클라리넷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가상 칠언'(Seven Words on the Cross for Clarinet and String Quartet)이다. 공공롭게도 이 작품은 고난주간을 끝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정말 하나

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일곱 말씀('가상칠언')을 가지고 만든 작품으로 클라리넷과 현악사중주(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해 작곡되었다. 총 7개의 부분(section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다른 악기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제1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를 토대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엣으로 심한 육체적 고통과 용서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또한 곡 중간에는 무대 뒤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소리도 연출된다. 두 번째 부분은 제2언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를 토대로, 첼로 솔로가 계속된 십자가의 고통의 모습과 더불어 옆에 함께 달렸던 도적에 대한 대답이 들려진다. 세 번째 부분은 제3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를 토대로, 육체적 어머니와 제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처음으로 현악사중주의 작지만 고통스러운 움직임의 연주가 나타나며 마지막부분에서는 무대뒤에서(off stage) 클라리넷이 세 번째 말씀뒤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고통의 침묵'을 표현한다. 네 번째 부분은 제4언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토대로, 모든 악기의 연주

로 영적인 고립감과 심한고통에 대한 절규를 아주 강한 리듬과 화음의 전개를 가지로 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제5언 '내가 목마르다'를 토대로, 육체적 고통을 클라리넷과 첼로의 듀엣으로 극단적인 리듬의 움직임과 다이내믹의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음형의 흐름을 통해 '물'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여섯 번째 부분은 제6언 '다 이루었다'를 토대로, 계속되는 육체적 고통에 이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예수님의 선포가 담겨 있는 부분이다. 모든 악기의 강한 제스처들이 그런 선포함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의 마지막부분에서는 찬송가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호모포닉한 스타일로 된 형태로 연주한다. 변박자로 이루어져 음악의 호흡을 달리하는 기법과 선율에서의 변주가 보이지만 찬송의 원래 모습은 느낄 수 있도록 변주되어 있다. 일곱 번째이자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인 제7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를 토대로, 고통으로 점철된 맥박의 소리를 느끼게 하는 오스티나토(ostinato)의 음악적표현을 기본패턴으로 유지하고 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나마 규칙적으로 울리던 것이 점차 그 소리가 희박해지고, 불규칙하게 나타나다 죽음을 의미하는 듯한 침표와 점점느리면서 사라지는 음악적표현을 통해 십자가상의 고통의 끝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은 처절한 고통의 상황속에서도 용서, 위로, 육체적 고통, 승리의 선포등을 짧지만 분명히 전달한 일곱 개의 말들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비단 2천년전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현대적인 음악어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 미움, 혼란스러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기쁨, 감사, 평온함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곡되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나로서는 이 작품을 내 신앙고백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윤규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음악대학원 작곡과에서 석사와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음악대학원 작곡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2014 ISCM 국제현대음악제(폴란드개최) 한국대표로 선정되었으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음악대학 산하 컴퓨터음악연구소(CCRMA, Center for Computer Research in Music and Acoustics) Visiting Scholar를 역임하였다. 현, 경희대, 중앙대, 경북대, 강릉원주대 출강중이다.

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함을 담아 노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바른'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속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바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속에서의 삶이 분리된다는 뜻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음악인으로서 특별히 현대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작품속에 내재시키고 그것들을 세상에 내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교회안에서의 음악의 언어를 넘어서 세상속에서 사용되는 음악적 표현과 몸짓으로 다가가고 싶은 것이다. 난 아직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바른 빛과소금의 현대음악을 만들어 세상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자로 설 수 있기를 갈망한다. 세상의 음악이 사탄송배하는 악한자들의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맞서 싸울 수 있는 영향력있는 음악들을 작곡하고 나가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들을 교회와 세상과 열방속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고 이미 허락하고 계신 생기의 임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짧은 글을 통해 나의 생각과 음악의 삶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우리 모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된 영적 도약을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베스트셀러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를
삶으로 녹여낸 업그레이드판 드디어 출간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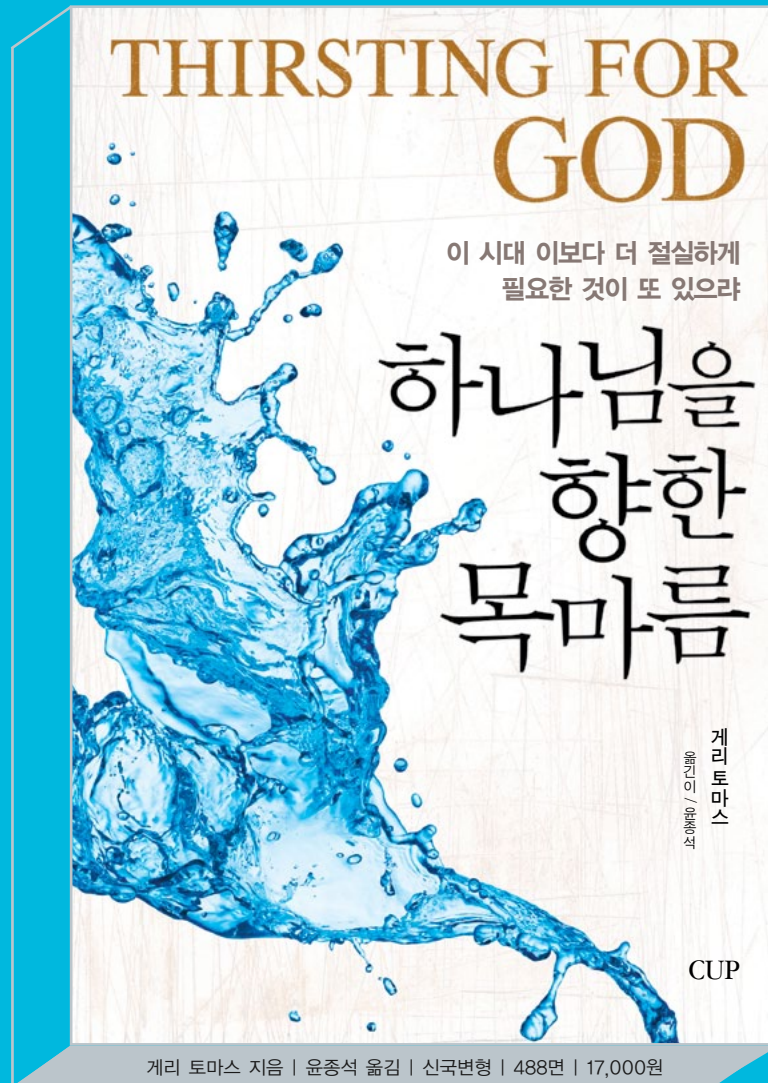
스테디셀러로 사랑 받고 있는 게리 토마스의 처녀작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20년의 내공을 담은 전면개정증보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또 한번 독자의 영성을 강타한다.

꼭 읽어야 하는 수십 권의 기독교 고전에서 영적

지혜를 뽑아낸 탁월한 책 이 책은 한 권의 책이 아니다! 수십 권의 고전을 관통한 놀라운 책이다. 고금을 아우른 영적 거장들과 저자의 삶의 연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와 치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란, 하나님을 향한 이기적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에 대한 공감이다. 영적 패스트푸드로 연명하는 삶에 지쳤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영혼의 수술! 광야에서 살아남고 행동하라 허약하나, 몸집만 거대해진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필수과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다. 세상을 비워 내고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산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가 만든 **생각훈련 길라잡이**
재미있게 생각하며 읽다보면
신앙도, 생각도 쑥쑥 자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바뀌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뀐다

유경상 지음 | 4 · 6배판 | 전면칼라판 | 15,000원



죽음을 배우다 아르스 모리엔디

김민철 (지생통합병원장)

확실한 것?

“확실한 것?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부딪히게 될 가장 확실한 사실이면서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죽음이지 않은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 의사가 되기까지 탄생에 관한 의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바는 극히 미미하다. 그것도 육체의 죽음 현상에 국한된 지식에 한정되기 때문에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요소를 가진 전인으로서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인간 실존에 관한 것은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필자가 수련을 받기 시작한 1980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이미 사망한 환자이지만 기관지 삽관을 한 상태로 앰부백(Ambu-bag)을 계속 조작하며 환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이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집에 도착한 후에야 기관지 삽관을 제거하고 죽음을 선언해주곤 했었다. 불과 30여 년 전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민간신앙의 영향으로 사람이 집 밖에서 죽는 객사(客死, 객지에서 죽음)하는 것은 본인에게 지극히 불행

한 죽음이라 여겼다. 또한 이 객귀(客鬼)가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도 꼭 집으로 옮겨서 운명하게 했던 것이다. 덕분에 그때는 죽음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조부모가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무엇이 아니었다. 대가족 제도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하게 서양화(化)가 진행되었고 죽음의 풍속도를 바꿔 놓았다. 죽음의 장소는 집 대신 면회가 제한된 중환자실로 바뀌었고 흰 가운을 입은 의료인들 사이에서 홀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다가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임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그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다른 경쟁업체의 장례식장으로 옮겨진다. 죽은 사람은 죽기 전부터 객체가 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다분히 상업화된 죽음 관련 비즈니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다 보니 죽음을 앞 둔 사람과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세상이 되었다.



랩물저 | 이지혜역 | IVP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청탁받고 얼마 전에 죽음과 관련된 두 종류의 책을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보았다. 하나는 심리적, 종교적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 죽음을 풀어 가는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다. 케이건 교수의 명성을 견인했고 인기 명 강의로 17년을 잊고 있다는 말이 충분히 납득될 만큼 철학자다운 뛰어난 논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논외로 하겠다는 저자의 전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속에는 불로초를 찾던 진시황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복제를 통해서라도 생명을 이어가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생의 욕구에 대한 터치가 애당초 막혀 있음을 느꼈다. 인간의 중대 사안이 논리만으로 이해되거나 파악될 수 없으며 또 인간은 그렇게만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른 한 권의 책은 포르투갈인으로 노벨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구의 『죽음의 중지』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로 시작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 나라에서 죽음이 중지되어 버렸다. 우선 죽음으로 장사를 하던 기업들에 문제가 생기거나 망해버렸다. 보험회사, 장례업자, 요양원, 병원…. 아니다, 병원은 만신창이로 찢겨진 몸으로 죽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상처를 처치하느라 다른 환자를 돌볼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의 신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마침내는 아이러니하게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죽지 않는 부모는 죽도록 고통스런 날들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차라리 죽기를 소원하는 부모를 신고 죽음이 있는 옆 나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국경 분쟁이 생겨 전쟁이 일어나지만 죽음이 없는 나라 국민들은 심한 전상을 입어도 죽지 않는다. 죽음은 필연적인 것임에도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죽음을 중지시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작가는 소설을 흥미롭게 이끌어 가며 인간 실존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의 서평을 쓰라고 청탁을 했는데 웬 다른 작가들의 책인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것은 이 책의 차별화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죽음을 냉정한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죽음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중지시키면 행복해질까? 이에 대해 명성이 높은 철학자의 훌륭한 강의에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 동의할 수 있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꼭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탓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강의라기보다 철학자다운 사고와 질문을 던져 준 것이었다.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의 소설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비웃는 듯한 요소도 보여주고 있어서 죽음을 수용해야 할 당위성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 다음에 대한 해답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전인적으로 살듯이 전인적으로 죽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죽음에 관한 훌륭한 안내서가 된다. 즉,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이 잃어버린 “좋은 죽음”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쓰여진 책이다. 현대

“
우리는 살기에도 바쁘고 의료가 죽음을 책임지도록 보험을 들어 놓아서 죽음을 너무 모르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앞 둔 사람과 한번도 대화해본 적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의학의 발달은 죽음을 준비하던 전통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죽음과 싸우는데 전력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점은 사실 암 전문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하며 종종 느끼는 바이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죽음과 싸우다가 죽음의 고개를 넘어 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살기에도 바쁘고 의료가 죽음을 책임지도록 보험을 들어 놓아서 죽음을 너무 모르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앞 둔 사람과 한번도 대화해본 적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 책은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우리는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에 세뇌되어 누가복음 12:13-21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공간에 재산을 쌓아 두었지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때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과 같다. 여기서 죽음의 준비란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자(눅12:21)가 되는 삶이라고 제시하듯이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유익중 중요한 점은 “죽음을 생각하라.”(Memento mori)는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죽음은 죄의 승리의 결과로 끔찍하고 절망적인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 안에 소망이 있다. 따라서 저자는 교회가 죽음을 앞둔 성도에게 그 소망을 환기시켜줄 수 없다면 실패

한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살피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실행하고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을 표현했던 역사들을 소개하면서 사라진 교회의 전통을 안타까워한다. 심지어 종교를 믿는 사람들(그중 95%는 기독교인)이 죽음을 앞두고 적극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세 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나 목회자의 심방을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와 비교할 때 죽음의 질이 더 낮다는 미국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인용하며 교회가 잘 죽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밝힐 때는 안타까움을 넘어 아픔을 느낀다. 책에 인용된 어느 노인병 학자의 “우리는 생명 존중이 지나친 나머지 죽음에 반대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이 책의 원제이기도 한 제4장 ‘아르스 모리엔디’(죽음의 기술)는 죽음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이해를 새롭게 해주는 압권이다. 개인적으로는 제4장의 내용은 기술이라기 보다 심오한 기독교의 죽음의 신학이라고 여겨진다. 존 던(John Donne)의 명상 17번에는 헤밍웨이가 소설 제목으로 인용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라는 문장이 나온다. 중세 서양에서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탄생과 죽음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

었다. 누군가가 죽으면 교회에서 그를 위한 조종을 쳤다. 조종이 울릴 때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위하여 저 종이 울리나”라고 묻지 말라는 것이다. 종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해 울리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죽음을 곧 자신의 성찰로 받아들여 승화시켰던 존 던의 인용은 4장의 깊이를 더해준다. 저자는 존 던이 “피골이 상접”한 채로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음을 설교했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존 던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성도가 따르고 준비하는 삶으로 그리고 있다. 이 믿음이 끔찍한 죽음마저도 적극적으로 대면하여 “좋은 죽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감람산 상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피땀을 흘리며 준비하시고 또 이를 위해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게 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죽음의 신학을 죽음의 경험으로부터 차단되어 죽음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낯선 신자들을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 죽음의 현장으로 초대하여 간접 경험을 통해 깨우치도록 설득하고 있다.

7장 “죽음을 앞둔 사람 돌보는 일”에서는 기독교 전통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를 제시한다. 환자와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돌보았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의 사망률이 낮았을 정도였다는 자료를 보여준다. 이것으로 외부인이 쉽게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7장의 결론은 오늘날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안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일 것이다. 안위한다는 말은 paraklesis라는 헬라어로 문자적으로는 ‘곁에 서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다. 이것이 사후 장례식이나 유가족의 애도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직 호스피스나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동기로 돌봄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을 배우다』(아르스 모리엔디)는 기독교인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걸작이다. 비교적 평이한 문체로 누구나 읽기 쉽게 쓰인 책이지만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의료인, 호스피스 종사자, 생명윤리학자, 유가족과 간병인, 영성 지도자 등 다양한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 죽음과 그에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 신학적인 기반 위에서 실제적인 통찰력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각 장마다 개인 묵상과 그룹토론을 위한 질문들이 부록에 첨가되어 있어서 개인 뿐 아니라 그룹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친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말씀 중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니”(마 16:21; 막 8:31; 눅 9:22; 요 3:14)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어 성경(NIV)에 의하면 반드시(must)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다.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부활의 길로 가기 위한 “MUST”이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을 지나며 이 책을 일독하며 죽음을 묵상하는 것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권한다. 저자 랍 물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죽음을 생각’(Memento mori)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그 기반에서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는’(Carpe diem) 삶을 살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본질, 즉 죽음의 전통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이 책을 관통하며 전달되고 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 죽음을 실행하라!



김민철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현재 군포 지샘통합암병원장이며, 전주예수병원장을 역임했다. 1994년 르완다 난민 구호 팀장으로, 그 후 SIM국제선교회 소속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일하기도 했다. 캐나다 TWU에서 선교학을 공부하였고 VIEW(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는 객원교수로 생명 윤리를 가르치기도 한다. 한국누가회(CMF) 이사장, 〈누가들의 세계〉, 〈의료와 선교〉 편집장 역임, 현재 한국기독교사회 회장이다. 저서로는 『의료 세계관이 결정한다』, 『한국사회 발전과 기독교』(공저), 번역서로 『상처 받은 세상, 상처 받은 치유자들』, 『의료의 성경적 접근』,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등이 있다.

충돌하는 세계관

최태연 (백석대학교 교수, 실행위원)

이 책의 원제는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times)이다. 저자 데이빗 노에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섯 개의 굵직한 세계관이 대결하고 있는 전투 상황으로 인식한다. 전투는 이미 시작됐다! 이 전투는 때로는 문화적으로 엘리트하게, 때로는 학자들의 논쟁 속에서,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테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노에벨은 이 세계관의 전투를 신문가판대에서, UN와 국회의사당에서, 세계 일류의 대학들과 칼리지의 강의실에서 본다. 이 세계관들은 매주 7일내내 어디에선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는 모든 생각과 관념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고후 10:5)하라는 성경의 메시지에 주목한다. 그는 C. S. 루이스를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변증하는 임무를 과감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루이스는 이미 한 세대 전에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불필요하게 자신들의 신앙적 입장을 비기독교인들에게 양보하는 태도를 개탄하면서 ‘기독교인의 색깔’을 드러내라고 충고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정치적·윤리적 신념뿐 아니라, 신학,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의 분야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21쪽)를 이 책에서 진지하게 다룬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이런 총체적인 신념의 집합체인 ‘세계

관’(worldview)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 노에벨의 확신은 세계관은 모든 사람의 신념과 사고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마침내는 사회와 문명의 성격까지도 바꿀 것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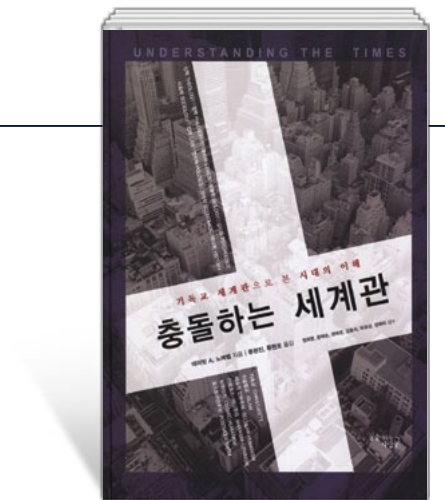
그러면 이 책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 책의 독특성은 우선 독특한 구성방식에 있다. 먼저 노에벨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문영역 10개를 선정한다. 신학,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이 그것이다. 각 학문영역은 이 책의 서론과 결론을 빼고 본론 10장을 차지한다. 그다음엔 각 장을 이 시대를 얻기 위해 격돌하고 있는 6개의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들 세계관의 이름은 성경적 기독교세계관, 이슬람교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포스트모던주의 세계관이다. 이러한 독특한 구성은 6가지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1장은 〈신학〉인데 1. 기독교 신학, 2. 이슬람교 신학, 3. 세속적 인본주의 신학, 4. 마르크스-레닌주의 신학, 5. 뉴에이지 신학, 6. 포스트모던주의 신학이라는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된다. 제임스 사이어가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에서 기독교유신론, 이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동양 범신론적 일신론,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8개의 세계관을 유형적으로 서술한 이래, 이를 다시 학문영역 별로 분석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이 책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1장 〈신학〉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노에벨에 따르면 모든 세계관의 토대에는 고유한 신학이 있다. 즉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념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어떤 세계관에나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세계관의 다른 내용에 지배하는 통제적 믿음을 제공한다.

첫째로 기독교 신학은 삼위일체 유신론(Trinitarian theism)을 주장한다. 유대교나 이슬람과 달리 기독교는 모든 존재를 창조한 하나님이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공존하면서도 한 분인 인격체라고 믿는다. 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자면서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구원자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난 특별계시와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주어지는 일반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알려진다. 일반계시는 목적론적 신 존재 논증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데는 특별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 이슬람 신학은 일종의 유니테리안 유신론(Unitarian theism)으로서 세계를 창조하고 심판하는 유일신인 알라 외에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역할까지도 인정하지만, 그의 신성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부정한다. 따라서 이슬람 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은 죄 중에 심



데이빗 A. 노에벨 저 | 류현진,류현모 공역 | 꿈을이루는사람들



각한 죄이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에게 알라를 알게 해주는 이는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이며 그의 가르침인 코란(꾸란)이다. 코란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계시이다. 그래서 코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알라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슬람 신학에서는 심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심판을 피하려면 모든 무슬림은 신앙고백과 기도와 라마단의 금식과 자선행위와 메카 순례를 해야 한다. 거기에 죄와 유혹에 대한 싸움과 이교도에 대한 싸움을 의미하는 지하드(성전)를 더할 수 있다.

셋째로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신념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세계관은 유물론과 무신론에 매우 가깝다.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종교적 믿음은 신화와 미신에 불과하다. 독보적인 인본주의자인 존 듀이는 인류에게 필수적인 도덕성과 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해 초자연적인 기독교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1980년의 〈인본주의 선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는 유물론자, 무신론자, 이성주의자, 혹은 회의론자일 수 있으나, 모두 우주를 위해 어떤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발견한다.”(92쪽)

넷째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신학도 무신론에서 출발한다. 이미 마르크스가 베를린대학의 ‘젊은 헤겔주의자’의 모임에서 포이어바흐의 영향 아래 무신론자가 된 이후, 모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는 무신론자가 되었다. ‘과학적’이라는 수식어 아래 그들의 신앙은 유물론과 변증법이 되었다. 기존의 종교는 환상이며 인민의 아편이다. 이러한 믿음 아래 1918년 소비에트 헌법은 사제와 성직자를 ‘부르주아 계급의 종’으로 규정했고 1950년대까지도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적 인물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선전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말대로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 뉴에이지 신학은 인간이 신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 신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신의 일부이고 신과 존재론적으로 하나이다. 특히 뉴에이지에서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의식(consciousness)이다. 인간은 의식의 고양을 통해 자신의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우주적 신성과 연결된다. 만유에 내재하는 이 신성은 물질에 생기를 주며 인간의 본성을 이룬다. 역사의 목적도 모든 사람이 이 신성에 도달하고 우주와 온전한 통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일이다.

여섯째로 포스트모던주의는 신은 없으며 절대적 도덕법도 없으며 인간에게 최종의 심판자가 없다는 믿음에서 인본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도 통한다. 이 점에서 많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 니체는 19세기에 신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확신을 가

졌고 모든 가치와 도덕은 주관적이며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인류의 죽음을 예언한 푸코처럼 대부분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무신론자이다. 그들은 모든 종교와 도덕과 학문의 근거로서 최종적 실재나 영원한 진리를 부정한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실재의 다원성과 모든 의미의 다의성이다. 이 신념은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어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보수주의를 낳았다.

이런 방식으로 저자 노에벨은 성경적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다른 5가지 세계관을 서술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서평자가 보기에 이 책의 저자가 간과한 우리 시대의 거대한 세계관이 하나 더 있다. 그 이름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이다. 그것은 세속적 인본주의나 마르크스-레닌주의처럼 서구 기독교문화에서 짝이 없고 배양되었지만, 성경적 기독교와는 다른 세계관을 형성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관은 앞의 두 세계관과는 달리 저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무신론을 신학으로 삼지 않고 유신론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 세계관이 기독교의 신학은 용납하더라도 기독교의 윤리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제학과는 여러 부분에서 충돌한다. 오로지 소유의 자유와 효용성을 원리로 삼는 자본주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자본주의 세계관의 심각성을 고민하지 않은 저자의 관점 역시 미국 복음주의 ‘세계관’의 한계일 수 있다.



최태연 송실대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철학적 해석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기독교철학전공 교수로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예술철학, 기독교와 과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적 기독교세계관의 정립과 개혁주의 미학과 과학철학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저서로는 「개혁주의와 과학철학」, 「폴 리코르의 변증법적 해석학」, 「Dialektik der Interpretation」, 「신앙과 논리」(공저), 「종교개혁과 미술」(공저) 등이 있다.

소개합니다

본 동역화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범아시아아프리카대학협의회(PAUA)를 소개합니다.

21세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찾습니다!

-PAUA 소개 및 PAUA 2014 한국대회를 마치며-

PAUA(Pan Asia &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범아시아 아프리카대학협의회)는 한국 기독교인들에 의해 선교를 목적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대학들의 연합체이다. 대학교육을 통한 선교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학들 상호간의 연합, 자원 및 정보의 교류, 한국을 비롯한 해외의 자원동원을 목적으로, 2008년 1월에 연합체가 발족되었다. 현재 10개의 정회원대학과 9개의 준회원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대학들은 일반기독교종합대학으로, 해당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을 통한 총체적인 선교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PAUA대학(해외 기독교대학)의 설립목적은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 정의로운 국가관을 바탕으로 소속 국가와 민족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인격적 지성인을 배출하는 것이다. 해외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토양이 약한 선교지의 상황 속에서 교육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고 인격과 기독교 세계관을 구비시켜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독교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교육적 자원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설립된 기독교대학에서의 교육선교의 의미는 이사야 61장에 잘 나타나있다. 선교지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 영적으로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다(사61:1).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만 고침을 받고, 놓인 자, 자유한 자가 된다. 그들은 그 땅의 황폐된 곳, 옛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중수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4절).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심으신 의의나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3절). 대부분의 선교지는 황폐하여 무너진 땅이다. PAUA대학은 이곳을 수축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전 영역을 일궈 세울 지도자들을 배양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의 설립목적은 대학교육을 통하여 선교지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문성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춘 전인격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PAUA의 4대 핵심 사역은 첫째, PAUA 회원대학 지원을 위한 자원동원(Mobilizing Resources)으로 회원대학에 필요한 교수 및 행정요원, 재정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한국내의 각종전문기관, 교회 등과 협력하며, 정부와 국제기구 등 세계 각국의 전문단체들과 Networking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PAUA 회원대학 상호간 교류 및 연합(Cooperation & Unity)으로 회원대학 간의 연합과 협력을 도모하여 교직원 및 학생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합을 위한 정기 Conference개회를 지속하는 것이다. 셋째는 해외 기독교대학 사역 연구 및 지원(Christian University Research)으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우수한 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며, 국내외의 전문가 그룹의 연합연구를 통하여 해외 기독교대학 설립 및 운영 Manual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지역의 필요한 곳에 대학설립지원(Founding Universities)으로 대학을 통한 전문인재의 양성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가내에 세계전문인단체들과 협력하여 대학설립을 지원한다.



현재 PAUA에 소속된 19개의 회원대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3개 국가에 세워져 운영되고 있다. 회원대학가운데 가장 먼저 C국에 세워진 Y대학교(1992년)를 비롯해 N국에 세워진 P대학교(2010년), 몽골에 세워진 울란바타르대학교(1995년), 몽골국제대학교(2002년), 후례정보통신대학교(2002년), 캄보디아의 국립기술대학교(2005년), 라이프대학교(2006년), 프놈펜국제예술대학교(2013년), 인도네시아 UKCW(1998년), 우간다 쿠미대학교(1999년), 탄자니아 아프리카연합대학교(2012), 스와질랜드기독교대학(2013년),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교(2012년), 말라위 대양간호대학교(2012년), 키르키즈스탄 K대학교(2012년), 필리핀기독교소명대학교(2010년), 가나국제대학교(2015년 개교예정), 캄보디아남아시아대학교(2016년 개교예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제대학교(대지구입/건축예정) 등이 운영되거나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PAUA는 2008년 1월에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교(NPIC)에서 9개의 회원대학과 한국과학기술단체 등 105명이 모여 PAUA 창립대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7월에는 C국 Y대학에서 8개 회원대학 및 기관 등 120여명이 모여 2차 대회를 가졌다. 3차 대회는 2009년 8월에 몽골에서 회원대학 및 교육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했고, 이 대회에서 최초로 한국동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4차 PAUA 대회는 한국동원대회로 2011년 1월 사랑의교회에서 국내의 30여 기독교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의미 있는 대회로 치러졌고, 특히 수도권지역에 PAUA대학이 널리 홍보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첫 번째 한국대회를 통해 780명이 헌신결의서를 제출하였다. 5차 대회는 캄보디아 라이프대학에서 2012년 1월에 180여명의 회원대학 교직원과 한국전문인단체들이 참석했고, 6차 대회는 인도네시아 말랑시에

있는 UKCW대학에서 2013년 1월에 12개국에 온 회원대학 교직원 및 한국내 기독교단체와 교육선교관계자 등 210명이 참석해 치러졌다. 7차 PAUA대회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동원대회로 2014년 1월 6일부터 25일까지 부산과 서울 등 6대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었다. 7차 대회 목표는 첫째, 한국교회 및 기독교대학들의 연합과 회복, 둘째, 한국교회 및 기독교수 등 전문기독교인들의 해외선교대학 교육선교 후원 및 참여, 마지막으로 해외선교대학의 영적/물적/인적 필요 홍보 및 국내자원의 네트워킹이었다. 각 지역에서 5천명이 넘는 해외대학 선교 관심자들이 7차 한국대회에 참가하여 469명이 PAUA 대학사역 참여카드를 제출하였다.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 기독교수, 기독교대학, 기독교단체가 연합하여 대회를 주관하여 준비하면서 PAUA 대학들이 널리 홍보되고 필요한 정보가 각 지역 관심자들에게 전달되었다. 8차 PAUA대회는 탄자니아 아프리카연합대학(UAUT)에서 2015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특별히 7차 한국대회는 처음으로 각 지역에 해외선교대학 사역을 보고하고 감사하는 감동과 은혜의 현장이었었고, 한국교회와 기독교대학, 기독교수, 기독교기관 등이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육선교의 축제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외선교대학과 교직원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영적에너지가 흘러들어가는 회복의 자리였음을 확신한다.

범아시아아프리카대학협의회(PAUA)

- 사무국 대표번호 070-7530-4967
- 홈페이지 http://paua.kr
- 대표 메일 paua.global@gmail.com

“기독교세계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입니다.”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변혁의 씨앗을 뿌립니다.

기독교세계관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인간, 자연, 역사를 보고 그것에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동역회는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이 하나되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학문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삶과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주권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안식년을 계획하십니까?



지 원 안 내

1999년부터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학장: Ken Radant 교수)에서 VIEW(원장:
양승훈 교수)가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 및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ipCS)과정의 문을
두드리세요. MACS/DipCS 과정은 최고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동문들(9학점 이상 이수)을 배출하였습니다.

모집분야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Worldview) 과정(54학점/2.5년)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CS-Worldview) 과정(29학점/1.5년)
MACS/DCS 과정의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가 인정하는 TWU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입니다. ② 한국과 캐나다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성경, 신학, 리더십, 세계관, 과학, 가정, 사회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조망을 가르칩니다. ③ 신앙과 삶의 일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조망 등, 삶에 직결된 내용을 강의합니다. ④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교 수 진 원 서 마 감 문 의 처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한 기독교 신자, 토를 점수 불필요 VIEW 전임교수, ACTS 교수진, 한국어 및 영어권 겸임교수진 20여명 4월 1일(가을학기) / 전년도 8월 1일(봄학기) worldview@twu.ca view.edu , acts.twu.ca 홈페이지 참고 TEL: 1-604-513-2121(교 3834,3838)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 28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가월현, 구재형, 권기웅, 김경현, 김경휘, 김고운, 김민지, 김병재, 김영주, 김은호, 김태우, 김희원, 박상희, 박준현, 생명의강, 영음사, 이평준,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황귀희 5천 구성덕, 권영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도희, 김미정, 김병국, 김성은, 김성찬,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정준, 김제우, 김 준, 김철수, 김태윤, 김항아, 김혜장, 노승욱, 노주하, 박승룡, 박진희, 박찬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신찬우, 심정하, 양혜영,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승환, 이윤희, 이항숙, 임선제, 임준택, 임형준, 장현일, 전정진, 전충국, 정범채,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섭, 권상순, 김영숙, 김영환, 김은미, 김효태, 민수진, 박현빈, 방선기, 영암교회, 이병주,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전영식, 정원길,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선욱, 고재호, 고현경, 구재환,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길원평, 김경숙, 김경식, 김경식, 김경화, 김경희, 김광순,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동우, 김동준, 김막미, 김범식, 김보경, 김상범, 김상욱, 김성경,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중, 김승남, 김승택, 김영남, 김영환, 김완중, 김요한, 김용식, 김우신,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혜, 김재연, 김재정, 김정모, 김정호, 김중국, 김준희,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판임, 김 혁, 김현경, 김형길, 김형수, 김홍선, 김홍제,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류현모, 마민호, 박광제, 박기연, 박능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상균, 박성인, 박시운,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경, 박희주, 배지연, 백경은, 백현준,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성명순, 손현택, 송미정, 송종철, 송철호,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원애, 신진선,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희영,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양행모, 오지순, 옥재호, 원선희, 유건호, 유경상,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동수, 윤상현, 윤천석, 이 강, 이경숙, 이계섭, 이관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대규, 이명동,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수, 이상환, 이상수,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의, 이용규, 이원배, 이원준, 이윤재, 이은미, 이은자, 이은주, 이은혜, 이인수,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수, 이정주, 이종국,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학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수연, 임 영, 임일택, 임지연, 장승재, 장영창, 장욱경, 장유진, 장인숙, 정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종화, 정경미,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상록, 정용수,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주, 제양규,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향, 조재천, 조현용,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세진, 최영수, 최윤영, 최익수,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현식, 최효영, 추진연, 태영숙, 하진호, 한인관, 한진영, 한혜실,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한나, 홍선호, 홍정석, 홍준호, 황규영, 황기철, 황도은, 황세환,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백 김수경 1만4천 엄지은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정상섭 2만 David Han, 강대훈, 강용란, 김세광, 김용식, 김민수, 김정호, 노용환, 박경원, 배성민, 배은경, 배인교, 변우진, 양혜원, 오경옥, 오성호, 우시정, 이 건, 이명희, 이상우, 이인아, 전광학, 조창근, 한정호 2만5천 문석윤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운정, 김중락, 김지원, 문준호, 박강국, 박미하,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오익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최용준, 추태화, 황의서, 황정진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박명경, 조무성 9만 김현숙 10만 김미영, 김익림, 김태환, 박상은, 송인규, 양인평, 윤완철, 전광식, 최태연 12만 강석필, 김인섭, 최홍영, 홍순모 15만 손봉호 20만 김승태, 김원수 21만 정영록 30만 김승욱 36만 권경태, 이홍구, 현창기 60만 양승훈

계 10,033,500원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언약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열린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58만2천2백60(600C \$) 주빌리채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계 5,632,260원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월드뷰』는 후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3년 2월 28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1,80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2,630,000		기타급여	390,000
	일반회비	4,582,500		소계	3,790,000
	기관후원금	5,632,260	경상비	사무실관리비	806,850
	기타후원금	10,000		통신비	215,790
	월보구독료	811,000		우편료	29,700
	CTC후원금	210,000		소모품비	463,050
	기타	161,712		컴퓨터	1,567,680
				식비	329,500
				복리후생비	867,700
				회의비	56,840
				회계용역비	330,000
				기타	450,356
	소계	15,837,472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4,000,000
				발송비	864,850
				소계	4,864,850
기타수입	기타수입	292,620	기타지출	세금 및 기타	259,540
	소계	292,620		소계	259,54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350,00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강사료	400,000
	미디어장학등록	0		미디어여행사준비	537,670
	미디어기타	0		미디어기타	181,500
	소계	350,000		소계	1,119,17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행사준비	0
	소계	0		소계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0
	학술지심사비	280,000		학회기타	234,000
	소계	380,000		소계	234,000
당월 수입액		16,860,092	당월 지출액		15,617,916
전월 이월액		44,191,431	차월 이월액		45,433,607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3년 2월 28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2,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600,000
				기타급여	0
				소계	1,600,000
			제작비	교정 및 디자인비	1,282,000
				편집비	300,000
				인쇄비	2,219,580
				소계	3,801,580
	소계	2,100,000	발송비	우편료	1,470
				소계	1,47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4,000,000	경상비	복리후생비	603,900
	기타수입	154,970		식비	9,000
	미디어후원금	10,000,000		회계용역비	220,000
				회의비	25,100
				소계	858,000
			기타	세금	91,040
				기타	51,900
	소계	14,154,970		소계	142,940
당월 수입액		16,254,970	당월 지출액		6,403,990
전월 이월액		48,394,590	차월 이월액		58,245,570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가 5월 24일(토) 고신대학교 “소통, 화해, 공존”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소통, 화해, 공존
- 기조강연 허문영 (통일연구원), 이우성 (STEPI)
- 일시 2014. 5. 24(토) ■ 장소 고신대학교
- 논문발표신청접수 마감 4/25(금), 제출마감일 5/7(수)
- 발표분야 경제경영, 교육, 문화예술, 법학, 철학, 역사, 상담심리, 사회복지, 의료보건, 융합, 기독교세계관 등
- 대학원생은 별도로 오전에 진행됩니다.
- 문의 02-754-8004 (담당: 신호영 간사)

[기독교세계관 이슈강좌]
토크콘서트 “현실참여”

2014년 세계관 교육본부에서 주관하는 이슈강좌, 노래가 있는 토크콘서트 “현실참여”가 열립니다.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현실과 사회를 조망하는 자리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4. 4. 24.(금) 오후 7시
- 장소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세미나실 (합정역 7번출구 뒤돌아서 200M)
- 토크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목사, 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
- 등록비 5,000원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담당: 김고운 간사)

[임원임명]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감사 임명

- 감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임원임명]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 <신앙과 학문> 2014년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최용준 (한동대 교수)
- 편집위원
이흥구 (건국대 교수), 박영주 (아신대 교수), 서성록 (안동대 교수), 양성만 (우석대 교수), 권태경 (총신대 교수), 전요섭 (성결대 교수), 이상무 (평택대 교수),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형길 (제주대 교수), 김경민 (전남대 교수), 이용권 (부산대 교수)
John Han (미국, Missouri Baptist University), Richard J. Edlin (호주, President & CEO Edserv International), Roel Kuiper (네덜란드, Erasmus University), Richard Gunton (영국, Leeds University), Nick Lantinga (한동대학교)

※ 수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귀한 동역 기대합니다.

[매월/모집] 대학로에 선 기독교 대학원생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매월 2번째 주 금요일 오후 5시 대학로에서 가까운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있습니다. 동역회의 교수님들을 멘토삼아 함께 담소를 나누고 연구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 일시 2014. 4. 25.(금) 오후 5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304호
- 문의 gihakyun@daum.net / 02-754-8004
- 3월모임 3/28(금), 멘토 정세열(경제학 박사)
- 변동이 있을 수 있사오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5월에는 해외석학을 모실 예정입니다.

<신앙과 학문> 2014년 2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신앙과 학문>은 2014년 1호의 투고접수를 받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앙과 학문>을 세트 판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기관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9권 1호 발행일 3월 31일
19권 2호 발행일 6월 30일
19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19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02-3272-4967(학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특별강좌.

CLIFFORD G. CHRISTIANS

미디어학의 거장. 클리포드 크리스찬

어바나 삼페인 소재 일리노이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교수이자 저널리즘 및 미디어 연구 담당 교수이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장으로 학사학위를, 신학으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사회언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철학윤리전공 방문교수를, 시카고 대학교에서는 사회윤리전공 방문교수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PEW 자원학자로 연구했다.

2014/4/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메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non-sense) 수수께끼

문제 다른 사람에게 라이터 좀 빌려달라는 남자는 어떤 남자?

답 불필요한 남자

문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

답 쓸데없는 여자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질병부담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망 질병률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고혈압, 흡연에 이어 3위로 공기오염이 꼽혔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이제 기호제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항균성 천연물, 고삼을 이용한
나노 특허필터 개발



이리오스 힐링목재공기청정기는 실내공기를 위협하는 **5종 악**을 제거합니다.

냄새 담배연기냄새를 비롯한 각종냄새

먼지 50~70 μ m 머리카락, 10 μ m 황사, 2.5 μ m초미세먼지

세균 폼알데하이드(CH₂O), 폐렴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악성세균MRSA, 녹농균, 암모니아, 톨루엔

곰팡이 집안을 부식시키고 음식을 상하게 하는 곰팡이

진드기 아토피 및 알레르기성 질환의 주요 원인



Object type Airpurifier
500*395*518(mm)
30평형



NC Pattern Airpurifier
450*450*630(mm)
30평형



Furniture type Airpurifier
510*510*682(mm)
30평형

현 실 참 여



그리스도인의 현실참여

4월 24일(목) 저녁 7시		
백주년기념교회 교육관 4층		
합정역 7번출구 뒤돌아서 200M 직진		
논객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목사)	
등록비	5,000원	
문의	info@worldview.or.kr 02-754-8004	

WORLDVIEW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통영회

논객 소개

신동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현재 매일성경, 목상하는 사람들 집필위원, 인터넷 신문 더보이스의 편집위원과 뉴스미션의 칼럼리스트이다. 문화와 설교 연구원 대표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책윤리운동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고양시 원당에 있는 빛과소금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직한 질문 정직한 답변>, <세전의 사과>, <청년 내가 가야 할 길>, <십자가 신앙>, <변화는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색깔> 등이 있다.